'96 불교학술 국제행사 '풍성'

올해 불교계는 5건 이상의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예정돼 있어 그 어느해 보다도 풍성한 학술마당이 펼쳐질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과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공동), 동국대,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한국불교연구원, 전통불교연구원 등 종단과 각 학술단체들은 세계유수의 석학들을 초청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중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다.

오는 19일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가 고려대장경 입력 CD-ROM시연회와 '정보화 사회와 불교' 등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의 첫 포문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관스님(해인사 주지)의 '대장경 전산화의 사상적 의의'에 관한 기조연설을 필두로 민영규 교수(연세대)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대장경'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의 '팔만대장경 보존의 철학'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리대)의 '불전전산화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0월 24, 25일 이틀간 동국대 학술문화관서 개교 90주년 기념 세계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미국, 일본등 4개국 10명과 국내 10명등 국·내외 20명의 석학들이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대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그러나 올해 가장 규모가 큰 국제 학술대회로는 조계종 교육원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개원 기념세미나를 꼽을 수 있다.

'세계 불교수행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주제로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스리랑카, 미얀마, 티벳,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9개국의 스님 및 학자들을 대거 초청 세계 불교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세계 각 나라 불교수행공동체의 소의경전과 수행체계를 조사연구하고 종합대조함으로써 현재 세계불교의 교학전통과 수행전통을 조망하는 것.

따라서 각 나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의 교학전통과 수행체계를 비교·조명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불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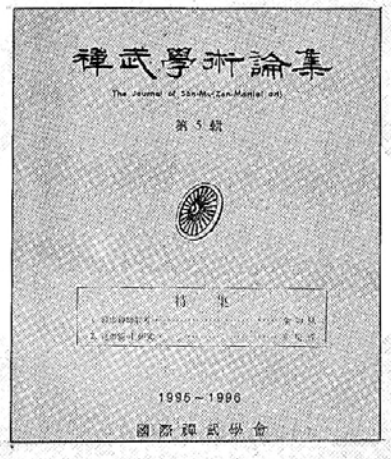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연구내용도 각 나라 불교의 교학전통 및 교단통사, 경·율·논 삼장과 계·정·혜 삼학의 수학비중 탐구, 그 사회에 있어서의 불교 및 수행자의 위상과 역할 및 전망, 불교학 연구 현황등으로 광범위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열어온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은 11월경 '종교와 국가 홍망의 논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통불교연구원(원장 김지견)도 10월 '화엄학을 다시 생각한다(가제)'를 주제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인민대 교수등을 다수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동대 90주년 기념세미나등 세계불교 현주소 조명

정보화·수행법등 토론 한국불교 미래상 제시



◇국제선무학회에서 발행한 '학술론집' 5집.

禪武 정신·육체건강 돕는다

체육·의학속 선수행등 24편 수록

'선무학술논집' 5집 나와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 원광대 교수)가 선체육, 선의학, 선문학, 선사상 등 선의 각 분야를 다룬 〈선무학술논집〉 제5집을 발간했다.

이 논집에서 '선무도가 인격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교육조건을 갖추고 있어 선수행의 한 방법으로 창안되어 발전해 왔다'는 김철 교수는 '선무수행으로 현대인의 정신적, 육체적 황폐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선무(禪武)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밖에 김정명(명지대)교수는 '禪과 신체과학' 연구에서 "선문답, 화두선, 초월체험등 선적 접근의 흥미로운 주제가 체육이나 스포츠 상황과 관련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행적 차원의 몸과 그 움직임에 대한 접근과 관찰, 연구가 부재한 신체과학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논집에는 △노인체육에 있어 '禪受容' 방법에 관한 고찰(최중인, 원광대) △한국의 신장신앙과 신장상 연구(김정희, 원광대) △달마도의 연구(최순택, 원광대) △태권도와 선수행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김홍식,동신대)등 모두 24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19일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완료 기념세미나

대장경, 진리찾는 정보의 보물

소흥렬교수 불교사상 정보이론에 접맥

민영규교수 "고려대장경 남해도서 조성"

해인사 대장경연구소가 19일 개최하는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불교사상을 정보이론에 접맥시킨 소흥렬교수의 논문과 고려대장경의 남해도일대서 조성됐다는 민영규교수의 논문은 크게 관심을 끈다.

소흥렬 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불교적 정보이론'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불교경전은 마음의 깨달음을 위한 정보의 보고이며, 진리를 깨달아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정보의 보물'이라고 주장했다.

소교수는 업보와 윤회는 한 영혼의 정보기능과 인연이 되어 전자의 정보내용이 후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천리안의 능력등 마음의 정보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는 경전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런 경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교의 기본개념인 업보, 윤회 등은 정보이론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좀 더 새롭고 명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들 개념은 불교적 정보이론의 개념으로 정보기술시대의 문제를 불교와 불전에 근거한 정보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장경이 실제로 조성된 지점은 강화도 보다는 남해도와 그 대안(對岸) 진양군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로 민교수는 첫째, 진양군과 하동 남해도는 당시 사재(私財)를 기울여가면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을 경영했다는 당시 권문세가였던 최이(崔怡)와 정안(鄭晏) 선대(先代)의 식읍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둘째로 남해도와 그 대안 진양군은 지리적으로 천혜(天惠)의 전술적 요지를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천연자원 등 제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바닷물에 담그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경판 다지기' 작업이 용이한 반면, 강화도는 간만의 차가 심해 이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셋째, 남해도 제작설을 증명하고 있는 박상국씨의 연구결과를 들어 위 주장을 뒷받침했다.

민교수는 또 대장경 재조(再造)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1237년 당해에 1백70권이 제조된 것과 1년전인 1236년 정안의 묘법연화경 7권이 간행된 시기적 차이로 보아 정안에 의해 이미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으며, 따라서 대장경 재조를 국책으로 돌리게 한 장본인 역시 정안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사성제·연기법도 없다'고 한 뜻은

문 반야심경에 보면 무안이비설신의, 무고집멸도, 무무명 등 12처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연기도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까닭에 사성제도 연기법도 없다고 하는가요?

〈최영철·서울 구로구〉

답 반야심경을 거듭 음미해 보세요.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모두 공했음을 비춰보시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것 하나 고정됨이 없이 찰나로 나투며 돌아가니까 어느 때를 '나'라고 말할 수 없어 일체는 공하였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들이 되었다가 남편 동생 친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를 '나'라고 고정되게 말할 수 없지요. 그와같이 일체는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 라고 규정지을 게 없습니다. 그냥 공이지요. 따라서 '나'가 공했는데 사성제다 12연기다, 12처다 할 게 없지요. 그래서 무!라고 한 것입니다. 깨달은 자리에서 보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잘 음미해 보세요. 내가 늘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살라 함도 고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정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부증불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그 무엇이 없고 오직 마음이니 보태도 늘지 않고 빼도 줄지 않고, 또 불구부정—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무!공! 할 밖에요.

소를 타고 못내리니 무슨 병통인가

문 십우도를 보고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그래 내가 소를 타기는 탔구나. 또 소를 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구나'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나기를 '소를 탔는데 소에서 내릴려고 하지 않으니 이건 또 무슨 병통인가' 했습니다. 스님 이게 어떤 병통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김경동·부산 동래구〉

답 소에서 내리면 그냥 송장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 하실 때 그냥 소를 타고 피리불고 다니지 않습니까?

소는 마음내기 이전 영원한 근본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게 없으면 송장이지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구요.

그것을 쉽게 말해 소라고 표현한 것인데 지금 생활하고 말하고 전해듣고 돌아가니까 그대로 피리를 부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니까 십우도로서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리불며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디 화엄경이 따로 있어서 화엄경이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살림살이 이 자체가 바로 화엄경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 물을 것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따질 것 없이 지금의 이 생활—바로 화엄경 속에서 소타고 피리부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병통이라고 하느냐? 실은 병통이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병통인 것입니다.

왜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지요

문 사람마다 신·구·의로 지은 업이 몽땅 입력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회하면서 왜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하는지요. 왜 내생에 대해 아무 것도 짐작하지 못하는지요.

〈박상훈·경기도 의정부시〉

답 그것을 알려면 마음공부해서 깨닫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몸 바꾸며 살아왔던 나와 지금의 나상봉을 해야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의 나를 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보고싶어도 지금의 나를 보라고 했습니다만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 열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불자라 교회·성당에 가면 꺼림칙한데…

문 할머니 어머니 모두 불자이십니다. 저도 영향을 받아서 불자가 되었습니다만 친구를 따라 교회나 성당엘 가면 그곳의 의식절차를 곧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꺼림칙한 생각이 듭니다.

〈황영록·서울 강남구〉

답 불교는 어떤 특정형식 종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도리가 '불'이고 우리 생활 자체가 '교'입니다. 불교란 그대로 진리임을 뜻합니다.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주님 찾고 하나님 찾으니까 다른 줄로 아는데 주님이란 나의 근본 뿌리를 말함이요, 하나님이란 일체만유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자체로서 하나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불교와 다를 바가 없고 모두 한 통속이란 말입니다. 다만 그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대상을 세워놓고 밖으로 찾으니까 다른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성당엘 가든 교회엘 가든 여건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되었거든 그들이 밖으로 주님 찾을 때 처사님은 나의 근본을 염하면 될 것입니다.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 소문에서 소문으로!!

불치병, 조상묘지 상담

오링테스트—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대명당에 편히 모시는 비법,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화제의 인물 법현 법사!

법현 법사 특별상담!!

과학적인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 상담자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 질병과 재앙에서 벗어나 건강과 행복을 찾는 비법의 상담
• 몸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체질에 맞게 감별하여 드립니다.

만성질병상담
정신병, 우울증, 뇌졸중, 관절염, 신경통,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사업실패, 자녀불행, 가정불행

◉ 사찰에서 사십구재와 영가천도재를 하실 때 영가를 명당도예에 모셔주면 편안한 영혼이 되어 극락정토에 이르게 하여 준다.

조상 묘지 상담

모든 질환과 액운은 조상묘 때문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도예는 고인의 영혼을 편안히 모시면서 극락정토에 이르게 하여 준다.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유골을 명당도예에 모시거나 묘지 옆에 묻어 주면 명당이 되어 자손이 발복을 받아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복이 이루어진다.

○ 묘지에 함부로 손을 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 명당도예는 묘지 옆에 묻어만 주면 영혼이 편안하게 된다.
○ 묘지가 없는 영혼도 명당도예에 모셔 주면 편안한 영혼이 된다.

◉ 각 사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강의도 하여 드리고 신도들에게 직접 보급토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 상담시간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상담장소 : 불 심 포 교 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 뒤)

상담문의
051) 465-5100, 467-5200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한국승가대학원
불기 2540년 수강생 모집<전기>

■ 모집기간 : 1월 17일 ~ 2월 28일까지
■ 모집인원 : 30명 (남·여 나이 불문)
■ 입학자격 : ① 스님
② 사찰·포교원을 운영하는 분
③ 사찰·포교원 개원을 계획하는 분
■ 교육기간 : 2년(매주 일·수요일 오후 2시 30분)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명함판 사진 3장
③ 승려증(신분증) 양면복사 1부

※ 위 서류를 구비한 후 모집기간 중 일·수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사이 부산강의실에 오시면 수강신청서 작성과 함께 담당 교수님의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불교 초종파 교육기관
한국승가대학원부산강의실
부산시 동구 좌천동 557-2(오비신호등 옆 3층)
전화 (051) 645-6224, (053) 952-8711
팩스 (053) 955-6579